



## 글쓰기 윤리를 위한 몇 가지 조언

### 1. 글쓰기 윤리와 글쓰기 부정행위

이수형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조교수

대학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는 주요한 연구 활동 중 하나이며, 대학생의 리포트 역시 단지 제출이 강요되는 과제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연구 활동의 일환이거나, 적어도 그러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초적인 방법을 배우기 위한 중요한 과정의 일부이다. 연구의 진실성과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연구 활동에 적절한 가이드라인 및 규범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연구 활동의 하위 영역인 글쓰기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자가 넓은 의미의 연구 윤리와 관련된다면, 후자는 그와 같은 연구 윤리의 한 부분으로서의 글쓰기 윤리와 관련된다.

온전히 자신의 생각과 느낌만을 표현하는 경우는 예외이지만,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글쓰기는 많은 적든 연구 활동에 근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령, 어떤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담당 교수로부터 제시된 혹은 스스로 선정한 주제에 대한 참고 자료를 찾아 읽고 이해하거나 실험·조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간단한 실험이나 통계 조사를 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연구 활동의 첫 단계이다. 그 과정에서 참고 자료의 내용과 실험·조사의 데이터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위조(fabrication) 혹은 변조(falsification)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옮겨와 표절(plagiarism)에 해당하는 오류를 저질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연구의 진실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며, 또한 당연히 글쓰기 윤리에 위배된다.<sup>1)</sup>

- ① 도용 : 다른 사람이 쓴 글의 전부나 일부를 자신이 쓴 글처럼 속여 제출하는 행위
- ② 자기복제 : 자신이 쓰긴 했으나 이미 한 번 제출했던 글의 전부나 일부를 새로 쓴 글처럼 속여 다시 제출하는 행위

1) 이러한 부정행위를 FFP로 약칭하기도 한다.



- ③ 표절 : 다른 사람이 쓴 글의 일부를 정당한 인용 표시 없이 몰래 자신의 글 속에 베껴 쓰는 행위<sup>2)</sup>
- ④ 자료의 위·변조 : 실험이나 조사 등을 수행하지 않고도 수행한 것처럼 속여 글을 쓰는 행위(위조) 혹은 실험이나 조사 등을 수행했으나 그 결과를 임의로 조작하여 글을 쓰는 행위(변조)

## 2. 생각과 말(글)

리포트나 논문을 쓸 때 글에서 다루어지는 주제,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다른 사람의 견해와 주장을 참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다른 사람의 견해와 주장은 책이나 기타 문자 매체에 의해 전달되는 글의 형태를 띠는 것이 대부분이다. 글을 쓸 때 다른 사람들의 글을 어떻게 참고하고 활용해야 하는가?

간단하게 규정하면, 글은 생각을 언어(languages)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생각’이란 대상에 대한 이해는 물론 판단이나 평가를 포함하며, ‘언어’란 생각이 표현되는 방식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간단한 생각, 가령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와 같은 경우라면, 거의 일대일 대응의 말로써 표현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대화에서라면 “나는 사과가 좋아” 혹은 “나는 사과를 좋아해”라고 말할 것이고, 글에서라면 “나는 사과가 좋다” 혹은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라는 말이 충분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된 글을 써야 할 경우, 내가 사과를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은 다른 과일을 좋아하는데 왜 나는 사과를 좋아하는지, 혹은 나는 왜 다른 과일이 아닌 사과를 좋아하는지에 대해 보다 자세히 말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생각을 전개시킨 끝에, 내가 사과를 좋아하는 이유를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가령 내가 사과를 좋아하고 내가 배를 좋아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이로부터 어떤 과일, 나아가 과일뿐 아니라 다른 뭔가를 좋아한다는 취향(趣向)의 문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생각을 확장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와 같은 생각이 아니라 “나는 자유가 중요하다고 본다”라는 생각이라면 문제는 좀 더 복잡해진다. 이러한 생각을 “나는 자유가 중요하다

2) 이는 좁은 의미의 표절이며, 넓은 의미에서 표절은 글쓰기 부정행위 전체를 뜻하기도 한다.



고 생각한다” 혹은 “자유는 인간에게 중요한 가치이다”라고 간단히 말하는 것만으로는 필연적으로 내용상의 부족을 낳는다. 자유에 대한 생각은 어떤 과정을 통해 전개될 수 있는가?

1. 자유의 사전적 정의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함” 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이다.



2. 뭔가에 구속당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 같지만, 반면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는 어떠한가? 가령, 미성년의 경우는?



3.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행사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법률의 범위 안에서”라는 제한이 덧붙여야 한다.



4. 그런데 “법률의 범위 안에서”라는 제한은 뭘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아닌가?



5. 참고 자료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지식을 갖게 되었다. 자유 개념과 관련하여, 고전적 자유주의(자유방임주의)는 구체제에 대항했던 도시 부르주아들이 근거로 삼은 사상이었으며, 이는 경제 활동에 있어 공정한 규칙만 남기고 정부 개입은 없애자는 주장이 그 핵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의 전개와 더불어 빈부 양극화가 심해지자 사회적 자유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때의 자유는 타인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개인이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유라는 적극적 의미를 띤 것이었다. 적극적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이 기본적인 수준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며, 교육이나 기타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다시 정부의 개입을 증대시켰으며, 1970년대 이후 득세한 신자유주의는 이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6. 구속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반대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현실적 한계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7. ....



“자유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보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잠깐만 고민해 봐도, 자유의 개념이 보다 엄밀히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다. 사전적 정의 이외에도 자유 개념이 어떻게 발생해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라는 역사적 정의, 현재 자유 개념이 어떤 의미로 쓰이고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사회적 정의 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또, 이에 대해서는 혼자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참고 자료를 통해 조사해야 한다. 개념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통해 자신의 판단에서의 논리와 설득력을 좀 더 향상시킬 수도 있으며,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애초에 가졌던 자신의 판단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이 경우 참고 자료는 자유 개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을 보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이해와 판단)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글이 되지는 않는다. 가령, 글에서는 어떤 순서와 구성에 따라 내용을 전개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위의 경우, 글을 역사적·사회적 제 측면과 관련된 자유 개념의 정의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식으로 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현대 사회에서의 자유 개념의 의미와 효과를 먼저 제시하고 난 후에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자유의 속성을 살펴볼 것인가 등, 글의 구성이나 순서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같은 생각이라고 해도 어떤 말로 어떤 순서로 전개하느냐에 따라 글의 수준과 효과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 같은 생각을 여러 버전으로 고쳐 써 보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한 편의 글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을 자신의 생각과 말에 어떻게 관련짓고, 양자 사이에 적절한 경계선을 설정할 것인가? 다른 사람의 생각(아이디어, 지식 내용 등)과 말(단어나 구, 문장 수준의 표현은 물론 글의 전개 순서를 포괄하는 구성 전략 등)을 참고하고 직·간접적으로 빌려오는 것은 모두 인용에 해당한다.

### 3. 인용의 유형

리포트나 논문을 쓸 때 글에서 다루어지는 주제, 내용과 관련되는 다른 사람의 견해와 주장을 참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다른 사람의 견해와 주장은 책이나 기타 문자 매체에 의해 전달되는 글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글을 쓸 때 다른 사람들의 글을 어떻게 참고하고 활용해야 하는가? 한 편의 글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아이디어,



지식 내용 등)이나 말(단어나 구, 문장 수준의 표현은 물론 글의 전개 순서를 포괄하는 구성 전략 등)을 자신의 생각이나 말에 어떻게 관련짓고, 양자 사이에 적절한 경계선을 설정할 것인가? 자신의 글에 참고한 다른 사람의 글(source)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경우를 넓은 의미의 인용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두 출전 표기를 해야 한다. 또, 출전 표기를 하는 것만으로 올바른 인용을 완료했다고 하기에 불충분한 경우도 있다. 인용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 (1) 간단한 언급

다른 사람의 글을 간단히 언급했을 때에도 출전을 표기해야 한다. 또, 간단한 언급에 직접 인용 부분이 포함될 경우에는 큰따옴표(“ ”)로 직접 인용 부분을 표시하고, 인용 면수를 표기해야 한다.

### (2) 요약(summarize)

요약은 비교적 분량이 긴 참고 자료의 요지를 자신의 말로(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따온 단어나 구를 인용하여) 줄이는 것이다. 만약 요약에 직접 인용 부분이 포함된다면, 마찬가지로 큰따옴표로 그 부분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 (3) 바꿔쓰기(paraphrase)

참고 자료 특유의 논리적 순서를 보존하면서 자신의 말로(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따온 단어나 구를 인용하여) 바꿔쓸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바꿔쓰기는 참고 자료의 특정 부분을 대상으로, 그 생각과 말의 형태를 비교적 충실히 보존하는 동시에 자신의 말로 바꾸는 것으로, 자칫 잘못하면 자기 말과 다른 사람의 말이 혼동되어 다른 사람의 말로 자신의 글을 채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가령, 직접 인용 표시 없이 참고 자료의 내용을 축약적으로 옮겨 적거나, 몇몇 표현을 부분적으로 바꿨지만 표현이나 구조, 전개 전략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바꿔쓰기가 아니다. 바꿔쓰기가 아니라 직접 인용에 가까운 것을 바꿔쓰기처럼 오해하도록 했다면, 그것은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표절로 간주된다. 바꿔쓰기가 어려우면 차라리 직접 인용하는 것이 좋다. 바꿔쓰기는 원문의 내용만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이해와 평가를 포



함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참고 자료의 출전을 표기해야 한다.

#### (4) 직접 인용(quote)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글에서 하나 이상의 단어, 구, 문장 등을 직접 따오는 것이다. 짧은 언급이나 요약, 바꿔쓰기를 하는 중에도 직접 인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이때는 큰따옴표로 직접 인용된 부분을 표시해야 한다. 그밖에 여러 문장 혹은 여러 문단에 걸친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참고 자료를 이용할 경우, 짧은 언급이나 요약만으로는 불충분할 경우가 있다. 그래서 바꿔쓰거나 비교적 긴 내용을 직접 인용할 필요가 생긴다. 그러나 고의든 실수든 바꿔쓰기는 ‘짜깁기’가 될 수 있으므로, 엄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자신이 없으면, 일단 참고 자료의 내용을 요약한 다음,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부분은 처음부터 직접 인용하고 이에 대해 자신의 말로 설명과 분석을 보충하는 방법이 안전하다.

### 학위논문 작성법 특강

[시 기] 4월, 10월 (매학기 1회 개최)

[신 청] 글쓰기교실 홈페이지(<http://writing.snu.ac.kr>)에서 온라인 접수

구 분	세부 프로그램
대학원생 대상	사회계열: 양적 연구 / 질적 연구 논문 작성법
	인문계열: 문학 / 역사학 / 철학 논문 작성법
외국인 학생 대상	학위논문 작성의 기초
	한국어 논문 작성의 실제